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라이즈호텔 권오상, 김인배, 이동욱 3인전 《무한주 Endless Column》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라이즈호텔은 12월 20일부터 2019년 3월 3일까지 조각가 권오상(1974-), 김인배(1978-), 이동욱(1976-) 3인이 참여하는 그룹전 《무한주 Endless Column》를 개최한다. 이 3인의 조각가들은 두드러지게 정통 조각의 노선에서 벗어나 조각 언어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매체 적용이나 시지각적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던 작가들에 해당한다. 본 전시는 이제는 중견 조각가의 자리에 들어선 이들의 근작을 '무한'의 역설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이다. 전시명은 의도적으로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에서 시작해 현대 조각의 정신적 모체가 된 "무한주"로 명명함으로써, 비단 이 3인에 한정된 논의가 아닌 '무한'에 대한 현대 조각가들의 로망과 집념이 만들어내는 역설, 그리고 그 역설에 인해 파생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무한은 '완전히 없음'의 개념과 함께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 개념이다. 무한성의 매력은 아마도 헤아릴 수 없는 수를 헤아리려는 기묘함에 있는 듯 하다. 인간의 시지각과 의식을 넘어서는 무한성은 전통적으로 숭고함을 논하는 개념이면서, 한편으로는 경계허물기와 새로운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무한성은 '역설'적 논증 방식을 통해 수많은 가능성으로 파생되고 두려움으로 노출된다. 제논(Zeno)의 거북이와 아킬레우스 경주의 예처럼, 역설은 터무니없고 모순적인 결과를 내놓지만 참인 논증을 일컫는다. 예술의 영역에서 이 무한의 역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지점을 헤아리려는 시도를 유익하게 만드는 마법의 언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3인의 조각가들도 유한한 수단이 만들어낸 무한의 상징들이 조각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과 양상으로 전이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조각이 창조하는 공간에서 발현되는 무한성의 예술적 의미를 규명하려 한다.

조각의 범주를 다양한 작업 시리즈를 통해 재정의해온 권오상 작가는 금번 전시에서 매스패턴스, 릴리프, 모빌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모빌 작업은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1898-1976)의 모빌과 서커스 작품에 대한 권오상 식 오마주이자 유희로, 조각의 주 요소인 양감에서 해방시킨 얇은 판형 조각들을 좌대에서마저 해방시켜 허공을 점유하도록 유도한 작품이다. 모빌의 사이즈를 크게 확대해 관람객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근거리에서 경험토록 함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로서의 조각적 재정의의 시도를 한다. 릴리프 시리즈는 원래는 작품이 될 수 없는 네거티브 나무 판형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후, 그 위에 포지티브 판형을 면처럼 쌓아 올려 양감을 준 릴리프 작품을 배치해 무한과 유한의 경계를 사유한다. 마지막으로 매스패턴스 시리즈는 브랑쿠시 좌대를 사진 조각으로 제작해 결국 좌대는 작품이 되고 이는 다시 실 좌대 위에 올라가게 배치함으로써, 2차원적 사진매체에서 시작해 상하 좌우의 3차원적 확장을 거치며 관습의 파괴와 모순적 배치로 점철되는 권오상식 조각적 무한성을 구현한다.

이동욱 작가의 작품은 3인 작가 중 가장 일상과 현실에 맞닿아 있다. 매체 선정이나 표현의 방식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의 취향에 많은 부분 기대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에 대한 진지한 관찰이거나 현실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인 경우가 잦다. 은근 시니컬하고 냉정한 시선은 이동욱 식 유머스럽고 재치 넘치는 표현 방식을 통해 부드럽게 관람객에게 전달되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진지하고 무겁다. 본 전시에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지난 십여 년간 선보인 여러 스타일들이나 방법론들이 총 망라된 여러 근작들을 선보인다. 스컬피로 만든 인간 형상, 트로피, 수집된 돌들과 기타 작가의 수집물들 사이에 섬세하게 배치되는 인간의 형상이나 잔재, 흔적 등이 한꺼번에 버무려진 조합들을 통해 작가는 인간과 사회라는 분리 불가능한 두 관계 속에서 파생될 수 밖에 없는 소외, 균형, 분열, 고립 등에 대한 영원히 지속될 수 밖에 없는 화두를 언제나 그려왔듯 잔잔히 짚어낸다.

김인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특유의 시선의 축을 흔들거나 교란시키는 작업을 선보이는 데, 그 중에서도 '개수'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한다. 우선 이번엔 설치되는 작품 <개수>는 어쩌면 두 개일지도 모를 크게 부푼 몸통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의 두상, 그리고 <2의 모각>은 서로가 서로를 모방한 듯한 두 개의 두상이 각각의 한 쌍의 다리와 연결된 태생적으로 불확정적인 존재를 통해 개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에 전작 <섬광 속의 섬광>이 더해져 개수에 강박된 구성과 배치로 관람객들을 작가가 치밀하게 짠 덫에 빠져들게 한다. 김인배 작가가 만들어내는 피조물들은 항상 전통 조각에서 중요시 여기는 양감과 공간 창조의 적자인 듯 보이지만, 실은 게임의 규칙에서 언제나 조금씩 비켜선 채 존재하는 이들이다. 그가 제시하는 터무니없고 불친절한 덩어리들은 내재적으로 점, 선, 면 등 여러 요소와 차원, 그리고 다양한 시선으로 촘촘히 배분된 채, 마치 제논의 거북이와 아킬레우스의 역설처럼 육체적 시도로 도출해낼 수는 있지만 논증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의 역설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별첨 1] 작가약력**권오상**

1974 년 서울출생

현재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200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서울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개인전

- 2016 릴리프 릴리프, 윌링앤딜링, 서울
The Sculpture,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중국
The Art of the Image_New Sculpture, 에르메스,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Recontemporary, 워터풀갤러리, 뉴욕, 미국
New Structure and Relief,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I 삼청, 서울
- 2015 구심점들, 아라리오뮤지엄, 탑동바이크샵, 제주
New Structure, 백아트, 로스앤젤레스
New Structure, 오키나와현대미술센터, 오키나와
- 2014 Structure, 페리지 갤러리, 서울
Osang Gwon, 조이스 파리, 파리
Osang Gwon: The Deodorant Type, 스타트오일 아트 프로그램, 스타트오일, 바롬
- 2013 Osang Gwon, 테멘공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싱가포르
Postmodern Times, 하다 컨템포러리, 런던
Masspatterns, 13 S/S Collaboration Exhibition #03, 맨메이드 우영미, 서울
- 2012 권오상 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I 청담, 서울
- 2011 Adore, 안도파인아트, 베를린
Sculpture, 두산 갤러리, 서울
- 2010 토르소, 갤러리 2, 서울
Deodorant Type, 두산 갤러리, 뉴욕
- 2009 Deodorant Type, 아라리오 갤러리, 뉴욕
- 2008 Deodorant Type: Sculpture by Osang Gwon, 맨체스터 시립미술관, 맨체스터
- 2007 Osang Gwon, 아라리오 갤러리, 베이징
- 2006 Gwon, Osang, 유니온 갤러리 II 개관전, 런던
The Sculpture,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 2005 Deodorant Type & The Flat, 앤드류 샤이어 갤러리, 4-F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 2001 Deodorant Type, 인사미술공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외 다수 그룹전 참여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13 테멘공 레지던시, 싱가포르
- 2010 두산 레지던시 스튜디오, 뉴욕
- 2005 국립 창동 스튜디오, 서울
- 2003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김인배

1978 출생

서울에서 작업 및 거주.

학력

200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서울

200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개인전

2014 점·선·면을 제거하라,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 삼청

2011 요동치는 정각에 만나요, 아라리오 갤러리 | 천안

2010 요동치는 정각에 만나요, 두산 갤러리, 뉴욕

2007 진심으로 이동하라,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 삼청

2006 차원의 경계에 서라,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단체전

2018 무한주 ,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 라이즈 호텔, 서울

쌘지스페이스 1998-2008-2018: 여전히 무서운 아이들, 돈의문 박물관마을, 서울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라이즈 호텔, 서울

수직충동, 수평충동, 대구 미술관, 대구

2016 그 다음 몸_담론, 실천, 재현으로서의 예술, 소마미술관, 서울

Animamix Biennale 2015 – 2016, MoCA (Museum of Contemporary Art) 상하이

2015 플라스틱 신화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2 관, 광주

코리아 투모로우 2015, 성곡미술관, 서울

묵음,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 II, 제주

SeMA Collection: 확장된 조각, 충무아트홀 갤러리, 서울

2014 APAPMAP 2014 JEJU, BETWEEN WAVES,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제주

장면의 재구성, 서울 시립 북서울 미술관, 서울

By Destiny,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제주

2012 RE-OPENING DOOSAN GALLERY SEOUL, 두산 갤러리, 서울

2011 에필로그: 경계에서다, 경기도 미술관, 안산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MAD, 뉴욕

2010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 갤러리 | 서울; 천안

2009 Korean Eye: Moon Generation, SC 제일은행, 서울; 사치갤러리, 런던

2008 오래된 미래전, 서울 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2007 제 8 회 오픈 스튜디오, 쌘지 스페이스, 서울

2006 Wake up Andy Warhol, 갤러리 쌘지, 서울

잘 굿기, 소마 드로잉 센터, 서울

Living furniture, 부산비엔날레, 부산

2005 Project 'I', 아트센터 나비, 서울

열, 인사아트스페이스, 서울

포트폴리오 2005,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2004 프레파라트_어머니 지구, 갤러리 스케이프; 갤러리 크세쥬, 서울

Sema 2004,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2003 All Rubber, 세종문화회관, 서울

- Relation, 멀티스페이스 키친, 서울
Serendipity, 북카페 아이덴티티, 서울
2002 나비의 꿈, 쌈지 스페이스,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00 제 3 회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클럽 Super fly, 서울

이동욱

1976 년 대전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201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200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6 LOW TIDE, 아라리오 뮤지엄, 제주
모두 다 흥미로운, 페리지갤러리
2014 평균적 고통, 코너아트스페이스
2013 Back Gardens, 샬로트루트 갤러리, 스톡홀름
2012 Love Me Sweet,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서울
Love Me Tender, 두산 갤러리, 뉴욕
2008 Cross Breeding, 아반테 갤러리, 취리히
2006 양어장,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I 삼청, 서울
2004 Mouthbreeder, 브레인 팩토리, 서울
2003 동종번식, KEPCO 플라자, 서울

단체전

2018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지금, 여기 또다시", 여수
2017 낭만도시, 인사이드-아웃 아트 미술관, 북경
별과 우리의 시간, 아르코 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서울
불멸의 임시변통, 문래예술공장, 서울
2016 Like-Ness, Albertz Benda Gallery, 뉴욕
2014 pillars,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리얼리?,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 서울
Multiple Languages, Silverlens, 마닐라
2013 디테일, 갤러리 시몬, 서울
Who is Alice, 라이트박스, 베니스
Barter Center for Images of Corea Companella, 호텔 아마데우스, 베니스
바나나와 나, 아라리오갤러리 I 천안, 천안
2012 두산 갤러리 재개관전: 두산 레지던시 아티스트 2009-2011, 두산 갤러리, 서울
진단적 정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
Road to 12,104 Miles, Palais de Clace, 부에노스아리레스
2011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아트앤디자인 미술관, 뉴욕
ARTISTS with ARARIO 2011, Part II,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I 청담, 서울
A Glocal View: Korean Contemporary Art, 읍살라 미술관, 읍살라
38N Snow South: Korean Contemporary Art, 샬로트루트 갤러리, 스톡홀름
2010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I 삼청; 천안
Made in Popland,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9 녹색한국으로부터의 반향-문화로 표현한 기후변화, 토탈미술관, 서울; 프레데렉스 시청, 코펜하겐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보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Conflicting Tales: 버거컬렉션(Buger Collection) 개관전, 짐머슈트라세, 베를린
Ultra Skin, 코리아나 미술관 스페이스 C, 서울

- Korean Eye: Moon Generation, SC 제일은행, 서울; 사치갤러리, 런던
- 2008 Daily Life in Korea, 한-태 수교 50 주년 기념전, 더퀸즈 갤러리
백현진 구동희 이동욱: 한국작가 그룹전, 아라리오 갤러리 | 베이징, 베이징
박하사탕, 아르헨티나 국립현대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 2007 한국현대미술: 원더랜드, 중국 국립 현대 미술관, 베이징
Disturbed: New Art from Korea, 페레스 프로젝트, 베를린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전, 산티아고 현대미술관, 산티아고
Skin of/ in Contemporary Art, 오사카 미술관, 오사카
- 2006 Give Me Shelter, 유니온 갤러리, 런던
Egomania, 시비카 갤러리, 모데나
- 2005 아름다운 냉소, 아라리오 베이징 갤러리, 베이징
- 2004 일상의 연금술,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
아트 인 컬처 젊은 작가 공모전 New Face 2004, 덕원갤러리, 서울
- 2003 현대미술의 단면, LCM 갤러리, 일산
- 2002 나비의 꿈, 홍익대학교 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11 두산 레지던시, 뉴욕

[별첨 2] 작품이미지 & 설치전경



권오상_<붉은 셔츠와 휘슬, 칼더의 서커스 Red Shirt and Whistle, Calder's Circus>_2018_UV print on 54 wood panels, varnish, chain, dimensions variable



김인배_<2의 조각 Things Modeled on 2>_2018_resin_40x50x221cm (each)



이동욱_<트로피 Trophy>_2018_mixed media_size variable



Installation view of *Endless Column* at Arario Gallery Seoul | Ryse Hotel



Installation view of *Endless Column* at Arario Gallery Seoul | Ryse Hotel



Installation view of *Endless Column* at Arario Gallery Seoul I Ryse Hotel